

■ 日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제주법도민운동본부 출범... 도내 52개 단체 참여

“오염수 바다에 버리는 것은 국제범죄”

“일촉즉발 위기인데도 정부·제주도 대응은 미온적”
“생태계 황폐화 우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제주시민사회단체와 농어민단체, 진보 계열 정당 등 52개 단체가 범도민운동본부를 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했다.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및 CP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제주법도민운동본부(이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 범죄”라며 일본 정부에 해양 투기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다에 투기할 수 있게 됐다”며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G7 정상회의 등의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확대하려 온갖 로비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제주도정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오염수 말고 처리수로 표기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제주도민 총궐기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저지 제주법도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9일 10시 30분 장소: 제주도청앞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도하려하자 농어민단체 등 도내 5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법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9일 출범, 정부와 제주도에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할란했다.

이들은 “핵오염수 투기는 태평양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우리나라 어업의 종말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의 어업 종말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옮겨갈 것”이라며 “정부는 해양투기 반대를 공식 선언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오염수 도정은 미온적인 현 정부를 향해 강력히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막아 세계유산 용천동굴 지키길”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19일 제주도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을 지키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정의를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이 세워지고 증설되면서 월정리 바다는 눈에 띄게 죽어갔다”며 “예전에는 딱딱했던 바닷속 돌이 힘없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다는 변해갔고 오분자기와 소라, 우뚝가사리는 자취를 감췄다. 이로 인해 월정리 해녀들의 생산물량이 급감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월정리 문제는 비단 월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문제로 이 땅 어느 곳에 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기자



자리돔잡이 어민의 부수입 21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자리돔잡이에 나섰던 어민들이 벤자리를 잡아 올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상품권 외상구입 교사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속여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제주지역

현직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초등학교 교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

서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을 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한달 뒤 모두 갚았다.

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 ‘새싹병원’ 설치
제주대병원, 거점 역할... “치료·자문·의료진 교육”

제주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킴이병원’이 본격 운영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검사·검진 등을 수행해 피해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327개소, 제주에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제주에 신설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앞으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의 전담 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 시범사업 성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지난해 고난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118명이 신고됐으며 치료와 학대 판단 등 자문 활동은 52건 진행됐다. 복지부

는 시범 운영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전문기관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의료진들도 의심 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 돼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원내 대표 창구로서 의사, 간호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 강현식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새싹같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나 잡아봐”... 장난전화하던 60대 쇠고랑

1년간 112에 900여차례 전화 경찰 탐문 통해 한림서 검거 업무방해죄 벌금 미납 등통

60대 남성이 112에 수백 차례에 걸쳐 1년 가까이 장난 전화를 걸다가 수배 중인 사실이 들어나 쇠고랑을 찼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20분부터 112종합상황실과 한림파출소 상황반으로 잇따라 장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장난 전화를 건 흉모(64)씨는 술에 취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해라”며 횡설수설했다.

흉씨는 이렇게 이날 오후 2시55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무려 50여차례 장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흉씨의 이전 신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그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90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흉씨를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하기 위해 한림읍 일대를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던 중 편의점 주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흉씨를 발견했다. 흉씨는 경찰에 단속되는 과정에도 장난 전화를 걸었다.

112에 장난 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흉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던 중 그가 과거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했다.

이상민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어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량 좋은 신종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차별화된 맛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신규 11-0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사전예약 방문생산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9-1(수산리735)